장흥 소각장 건립, 4년째 지지부진

집행부-군의회 '공법·시공사 선정' 첨예 대립

주민들 "합리적 대안 도출…조속히 추진해야"

장흥군 집행부와 군의회 및 일부 주민들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장흥군 부산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장흥군이 90여억원을 들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하루 20t 처리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사업은 현재 공법선정과 실시설계를 끝내고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반대 주민들과 군 의회측의 의혹 제기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 및 반대측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적격심사(PQ)로 결정한 '소각장 공법'이다.

군의회 K모 부의장은 지난 1월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군수이하 9명의 선정위원회에서 사전 각본에 의해 D사를 선정했다"며 군 집행부를 몰아붙이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최근 D사가 부도나자 집행부가 재무구조도 빈약한 업체를 선정했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근거에 따라 지원된 선급금 1억원 역시 하자가 많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 집행부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결탁과 묵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부 군 의원들과 반대측 주민들이 탈락 업체로 부터 로비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달 중 부도난 D사를 제외한 또 다른 3개 업체 가운데 1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 소모적 공방만 계속되면 결국 주민피해로 이어진다"며 "합리적 대안 도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푸른 보성 가꾸기 보성군이 지난 16일 대대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벌였다. 군은 이날 노동면 학동리 국도 29호선 주변 등 총 6개소에서 비자나무와 벚나무, 단풍나무, 철쭉 등 2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보성군 제공〉

"나비와 함께 함평천지 뛰어보세요"

내달 22일 함평나비마라톤대회

완주자에 나비쌀 등 경품 푸짐

오는 4월 22일 제 7회 나비마라톤 대회를 주관하는 함평나비마라톤클럽은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도 참가해 지역 홍보와 교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제 9회 나비대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제 7회 함평 나비 마라톤대회'가 다음달 22일 열린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 나비마라톤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함평공설운동장을 출발해 함평천 수변공원, 자연생태보전지역 일원에서 펼쳐지며 풀코스와 하프코스, 단축코스, 건강코스 등 4종목으로 나눠 실시된다.

참가비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단축코스(10㎞)는 3만원, 건강코스(5.5㎞) 1만원이며 인터넷 홈페이 지 (www.nabimarathon.com, www.nabimaratonlife.net)나 우편, 팩스(061-320-3532)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061) 320-3444.

함평군은 건강코스 참가자에게 완주 메달과 티셔츠를 , 풀·하프·단축코스 참가자에게 완주메달과 기록증, 지역 특산물인 나비쌀(10㎏) 1가마씩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함평 나비마라톤클럽(회장 김영대·48)은 국가대표 배출의 산실이었던 함평 마라톤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다.

나비마라톤클럽은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마라톤 대회에 전 회원이 참가, 함평지역 홍보는 물론 마라톤 인구 저변확대와 지역간 교류 증진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장흥학당, 경찰서장 초청 범죄예방 연찬회 가져

사단법인 장흥학당(명예당주 손수익)은 최근 범죄예방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연사로 초빙된 김대식 장흥경찰서장(사진)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가운데 13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가 5년전 보다 5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조했다.

한편 장흥지역 주민들에게 연찬과 면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장흥학당은 매달 2일과 16일 두차례 조찬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중국발 황사 비상…배 착과율 높여라

황사 먼지가 암술 나팔관 '주두' 막아 수정 방해

인공수분 횟수 늘리고 꽃가루 양 30% 더 확보해야

올해 황사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주와 영암 등 배 주산지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농촌진흥청 나주배시험장은 배 개화기인 4월 초에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착과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인공수분 의존도가 높은 배 농사의 경우 미세한 황사 먼지가 이른바 암술 나팔관인 '주두'를 막아 수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열매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관이 막혀 생육장애 등으로 제대로 크지 못한 채 낙과가 되기 쉽다.

황사가 심했던 2001년의 경우 경기와 충청, 전남지역 등에서 인공수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착과율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배시험장은 개화기에 맞춰 실시하는 인공수분 횟수를 가급적 늘릴 것과 수분용 꽃가루 양을 예년보다 20~30% 가량 더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동수 배시험장 육종연구실장은 "착과율은 한해의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농가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나주시 집중지원대상학교에 나주고·금성고 선정

나주 금성고와 나주고가 집중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나주시는 최근 '중심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관내 12개 고교중 나주고와 금성고를 대상고교로 선정했다.

시가 집중지원학교를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나눠먹기식' 지원에서 탈피, 집중지원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시는 이를위해 각계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으로 중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현황, 비전과 발전계획, 운영계획, 학습지원 능력, 시설환경 등을 심의, 확인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3년간 매년 1억5천만원씩 지원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구례 산수유꽃 축제 '옥에 티'

"始木地 아닌 곳서 제례 행사" 주민 반발

구례군 대표축제인 '산수유꽃 축제'가 올해로 9회를 맞고 있으나 산수유가 처음 심어진 시목지(始木地)가 아닌 곳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례군은 지난 2000년 산수유 시목지인 산동면 원달리 달전마을 이모씨 소유 대지 236평과 가옥 매입을 추진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매입을 포기했다.

군은 제 2회 산수유 꽃축제때부터 시목지에서 3㎞ 정도 떨어져 있는 계척마을에 있는 나무를 '할머니 산수유나무'라 이름짓고 이곳에서 축제 개막행사로 제례를 지내고 있다.

이에따라 천연기념물 제 125호인 산수유 시목은 빈 농가의 뒤뜰에 방치돼 있다.

달전마을 주민들은 "시목지에서 제례를 지내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군이 지난 2000년 이후 시목지 일대 토지 매입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시목지 제례행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부터 산동면 계척마을 주변에 44억5천여 만원의 국비를 들여 '산수유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달전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광양 매화나무 북한간다

市, 개성공단에 100그루 기증

광양의 매화나무가 북한 유실수 동산 조성에 한몫을 하게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북한 개성공단 인근에 조성중인 유실수 동산에 5~6년생 매화나무 100그루를 기증할 계획이다.

시는 매화 나무 기증과 함께 오는 4월 4일 개성공단 식목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성웅 시장과 시의원 등 20명의 방북단을 구성하고 지난 주 통일부에 방북 허가를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우리 지역 매화가 심어져 남북화해의 상징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부모님, 세금 걱정 마세요"

함평 이어 강진군도 '효도납부운동'

부모는 부담 덜고…자녀는 효도하고

출향자녀들이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효도 납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은 자동이체 등을 통해 고향 부모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는 '효도 납부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함평군이 이달부터 이 운동을 펴고 있으며 강진군이 두번째다.

이 운동은 부모에게는 효도를, 행정기관은 체납액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또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마감일을 잊거나 고지서 분실로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내야 하는 등 불이익도 덜 수 있다.

군은 조만간 출향자녀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대납을 원하는 자녀들은 군 재무과나 각 읍·면에 전화나 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